



反 性 폭 력 선 언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성폭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폭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방, 술자리, 모꼬지, 강의실, 교정... 그 어느 곳에서나 성폭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사회는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수많은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폭력, 그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성폭력을 반대하고 성폭력 근절을 염원하는 여러분이 <반성폭력 선언>의 주인공입니다!!!

<반성폭력 선언>에 함께 합시다.

<반성폭력 선언>은,

- 그동안 자신 속에, 혹은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성폭력적 사고와 행동에 대해 돌아보고 스스로 고치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 우리 모두가 일상속에 묻어있는 성폭력적 문화를 바꾸어내고자 다짐하는 것입니다.
-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 스스로 온갖 형태의 성폭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1. 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온갖 형태의 성폭력에 반대합니다.
2. 나는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고통을 이해합니다.
3. 나는 성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나는 내 주변에서 존재하는 성폭력적 사고와 행동들을 고쳐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 나는 특히 대학사회에 만연해있는 성폭력을 나 스스로부터 없애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름	학번	성별	이메일	한마디
1					
2					
3					
4					
5					

反성폭력 문화제 준비계획 - 3탄!

1. 기획의도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성폭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폭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방, 술자리, 모꼬지, 강의실, 교정... 그 어느 곳에서도 성폭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사회는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수많은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그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는 반성폭력 운동을 끊임없이 진행해왔습니다.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성폭력을 둘러싼 수많은 왜곡된 시선과 온몸으로 싸워왔습니다.

대학 내에서 소외되어온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서가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 제정투쟁, 개정투쟁을 수년간 펼쳐오고 있습니다.

자치적인 규약을 만들어 성폭력을 근절해가기 위한 작은 걸음을 걸어왔고,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성폭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성폭력 경험의 피해와 고통은 아직도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몫으로만 남겨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단지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사람을 위주로 얘기되지 못하며, 생존자의 경험과 진술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들의 역고소로 성폭력의 경험은 다시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2003년, 반성폭력 운동의 새로운 모색기에 들어서면서, 반성폭력 문화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반성폭력 문화제는 단지 하나의 '문화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고닦아온 반성폭력 운동의 터를 굳건히 딛고 서서, 이제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을 다시금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반성폭력 문화제를 벌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공동체 속에서 사건으로 나뉘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식 전환, 성폭력 경험의 의미를 다시금 재해석하여 더욱 능동적인 생존자로서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서나가는 방향을 모색해갈 것입니다.

5월 30일 반성폭력 문화제에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2. 일시

5월 30일 연세대학교 (확정)

장소 및 시간은 구체적 협의 중

3. 명칭

"넘다"

4. 기획 흐름

▶사전마당 <희망은 있다> 노래 및 몸짓 배우기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1부 :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닦았구나

▶2부 : 내 주위의 풍경 - 지금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주변은

▶3부 :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5. 구체적 기획판

▶사전마당 <희망은 있다> 노래 및 몸짓 배우기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 노래 한 구절과 시 낭송으로 열어내는 서막
- 어둠 속에 의자 위에 걸터앉아있는 두 여성에게 희미한 빛을 비추이면서 시의 내용을 이어감

▶1부 :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닦았구나

- 영상 (그 동안의 투쟁의 과정을 담은 영상) & 파워포인트
- 학칙 조항 일부를 외치는 멘트로 시작하여 학칙 제정투쟁을 했던 대학 학우들의 울동으로 이어지는 것
-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해왔던 것에 대한 짧은 발언
- 여학우 택견 : 터를 닦은 여학우들의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투쟁의 모습을 형상화

▶2부 : 내 주위의 풍경 - 지금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주변은

- 학우들 동영상 인터뷰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내 주위의 성폭력
- 과여부장들의 짧은 극 공연 1 :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하여
- 관객석 즉석 인터뷰
- 소리공연 : 성폭력 피해와 고통의 깊이를 표현하는 소리공연 (국악과)
- 극 & 발언 : 교수 성폭력
- 퍼포먼스 :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퍼포먼스, 그림자 퍼포먼스 / 오카리나 연주
- 살풀이 : 우리 주변의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살을 풀어내는 공연

▶3부 :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 학우들 동영상 (희망적인 인터뷰 내용을 따서)
- 시낭독 : 자작시
- 투명 대형 풍선 & 집단 퍼포먼스 : '내 주위의 풍경'을 상징하는 투명 대형 풍선에 들어가있던 한 사람(혹은 여러사람)이 대형 풍선을 뚫고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희망찬 몸짓(정해진 울동이 아닌 그야말로 몸짓)을 하며 무대를 뛰어다니는 퍼포먼스
- 과여부장들의 극 공연 : 짧고 희망적인 내용
- 신나는 소리공연 : 팬플룻 (& 핸드벨 혹은 실로폰)
- 성폭력 때려잡기 두더지 퍼포먼스 & 새내기, 대표자들의 선언 & 춤 공연
: 관객석 곳곳에 앉아있던 새내기들과 대표자들 중 00명이 관객석에서부터 성폭력 때려잡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무대위로 올라 오고,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가 되는 선언, 그리고 댄스 공연으로 이어지는 판
- <희망은 있다> 전체 몸짓
- 기수 공연(?)
- 반성폭력 선언 운동 모아내는 판

▶부대행사

- 페이스페인팅 (용인대)
- 기념품 모음 판매
- 버튼 판매

▶기획거리

- 반성폭력 운동 포스터 패러디
- 나의 성폭력 지수는? (예 아니오 화살표)

qydh@hanmail.net
jydh@jinbo.net